

# 송백희, 그 푸른 오월의 누이들

## \_임영희 (1980년 당시 현대문화연구소 간사)

글 · 이경은 kayklee@empal.com

30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한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면 누구라도 잊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투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모든 사건이 일상사였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 같기 때문이다.

구수한 광주 사투리가 여유로움으로 다가오는 사람 좋아 보이는 임영희 선생은 광주에서는 컴퓨터라 불릴 만큼 기억력이 좋다. 그 평판대로 30년 전의 상세한 현장의 증언을 해 주셨다. 전남대 재학 때 학생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늘 투쟁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임영희 선생은 지금도 5월의 광주를 마음속에 새기며 산다.

그를 만난 것은 2006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의 현장민주화운동연구 가족운동 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였다. 가족운동은 구속자 가족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어서 대개는 여성들이 주축이 되었다. 광주의 가족운동 역시 60년대 <함성>지 사건의 박석무 선생을 비롯한 남성들의 구속 이후 가족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임영희 선생은 학생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성들의 모임인 송백희에 참여하게 되었다. 송백희는 광주 전남 지역의 구속자 가족들의 모임과 여성 활동가들을 모아 여성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홍윤희(필명 홍희담, 소설가) 선생과 현대문화연구소의 윤한봉 선생이 주축이 되어 만든 광주 지역 최초의 여성단체였다.

“우리가 그때 78년도에, 79년도 80년도 초에 소위 말해서 송백희라는 게 단 옥바라지가 아니고요, 우리

송백희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 뒷조사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 현대문화연구소는 항상 입구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오는 여성들은 대단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건물 자체에. 들고 나가는 거를 항상 조사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시절이 되게 어려운 참여자들만 거기를 왔던 거야. 용기 있는 사람들만.”

거의 막내로 송백희에 참여했던 임영희 선생은 광주의 송백희가 선도적인 여성운동단체였지만 지역에 기반한 탓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그 정점을 맞이했으나, 신군부에 의한 폭력적 진압 이후 매우 힘든 어둠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송백희도 그 광주 5월의 현장 한 가운데에 있었다. 1980년 5월 17일 밤 12시를 기해 계엄이 제주도를 포함하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운동에 가담할만한 사람을 미리 잡아두기 위한 예비검속은 17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기들 대부분도 역시 예비검속으로 체포되었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현대문화연구소도 폐쇄되었다.

“도청은 도저히 험악한 분위기에다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간첩, 독침사건 터져 갖고 난리인데, 거기도 강경파 온건파 있는데, 거기 쪽 사람들이 대부분 수습위라는 사람들이요, 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했을 때, 우리가 Y쪽에서 일종의 운동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실질적인 대책회의를.(중략)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모금(가두모금)조, 그 다음에 리본(조),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전부 여기다가 검은 리본 다는 거. 그 다음에 대자보조, 한 4개조를 나눴어요. 대자보조 조장이 극단 광대의 김정희였고, 리본조는 이윤정(송백희).....”

현장에 있어 본 사람이 아니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리본조는 리본 일만 하고,





로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두 명이 하겠어? (중략) 접수받은 사람도 있고, 김치통 들고 도청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시체(안치소에)한테 거기서 태극기 덮어주고 염하는 사람도

대자보조는 대자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이 눈에 보이면 누구든 달려들어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후에 당신은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은 그야말로 우문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한 장소에서 끝까지 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 (홍희운)언니도 나와서 도청 쫓겨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앞에. 그래서 우리 안에 소위 도청 쫓겨대회 분과가 있었어요. 문화선전대 역할을 아까 말한 광대 팀들이 한 거예요. 광대 팀이 도청 1차, 2차, 3차, 4차 쫓겨대회에 민심을 어떻게 좀 모아 불려고, 계속 쫓겨대회를 4차 정도 했었는데, 희운 언니도 연단에 올라가서 도청 분수대에서 낭송을 하고, 나도 가서 낭송을 하고. 그러니까 보면 본대

있었고,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뒤집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중략) 모금조는 또 모금하다가 또 달려 나와서 또 리본 조금 하다가, 안에서는 등사 밀다가, 이렇게 겹쳐, 겹쳐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엄군의 무력진압이 시작되고 시민과 어린 학생들까지 무차별 사살되면서 광주시민은 무기고를 열어 총을 들게 되었지만, 여성들은 화염병은 들었어도 총을 들 수는 없었다.

“모금조, 대자보조, 그 다음에 도청 쫓겨대회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죠. 그 기획을 같이 했었으

니까 거기서. 그리고 인제 이게 상황이 워낙 커져버렸기 때문에 뭐 총기 담당하는 팀은 여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 <화려한 휴가>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지만 5·18민중항쟁은 시민들의 대동투쟁이었다. 임영희 선생은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시위하던 장면을 꽤 유쾌하게 설명했다. 사실 민주화운동은 비장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늘 함께 웃고 울긴 해도 언제나 낙관적인 미래의 희망을 품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중심에 있다. 비관적인 패배주의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일이라며 뒤에 앉아 냉소적으로 추이를 관망만 하지 않던가.

“뛰다보면 생판 모르는, 옆에 술집여자가 같이 달리기도 하고, 가다 보면 하하!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학생운동 해보면 데모를 해보면 대개 아는, 우아래로 선후배로 알잖아요? 이걸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죽어요. 갑자기 담벼락을 막 튀어서 2미터를 올라가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부는 사람도 있고, 엎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순간이 어떻게 상황 설정이 안 돼.”

오월의 누이들은 1980년 5월 광주의 격랑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소중히 키워온 희망의 싹이 잘려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서울 부녀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여성부문이 있었잖아요? 상당히 의식화운동에 중점을 뒀는데, 제가

보는 것은 광주 송백회는 그 단계보다는 한 단계 나아갔다고 봐요. 상당히 조직적이었고, 그냥 단순한 행동이, 영치금 이거뿐만 아니라, 물론 양말도 뜨긴 했지만 자기 자아의식에 대한 성과도 나타내기 위해서 스터디를 계속 했고, 그런 조직운동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5·18 따라서 송백회 자체는 좌초가 된 거죠. 광주의 부문운동이 아마 다른 지역보다 현재 상황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여성부문도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한 십 몇 년 동안, 이런 부분도 다 싹이 잘렸지 않았느냐.....”

임영희 선생의 증언대로 송백회는 부문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조직으로 발아하다 광주 5월의 격랑 속에서 그 싹이 잘렸다.

하지만 아무리 역센 풍랑도 그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못했다. 그 당시 활동가들은 수배 생활을 하면서도 광주의 역사적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며 다시 운동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주항쟁 관련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모아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공부방을 만드는 등 지금까지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경은*

글 · 이경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간사